

쉬어가는 페이지 2

복장리 사모바위 전설

가평읍 복장리에서 고성리 쪽으로 가는 길가 논에는 바위가 하나 서있다. 일명 사모바위라 하는데 이 바위에는 슬픈 사랑이야기가 담겨 있다. 경기문화재단에 실려 있는 글이다.

조선시대 성년이 다된 총각이 있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배우지를 못했으나 흰칠한 키에 용모도 뛰어나고 총명했다. 그저 품을 팔아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형편이라 장가는 물론 늙은 어머니마저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딱한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젊은 여자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지금까지 여자 손목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솜총각이었다. 그런데 처녀가 그것도 알몸으로 허우적대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단 사람 먼저 살려 놓자는 생각으로 뛰어들어 처녀를 구해냈다.

총각은 자신의 옷으로 처녀의 몸을 가려 주고 돌아앉아 있으려니 가슴이 두근거리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언뜻 보았지만 고운 눈매와 예쁜 얼굴, 그리고 백옥같이 하얀 살결이 하늘에서 내려 온 선녀처럼 보였다. 총각은 용기를 냈다.

“어찌다가 물에 빠지셨습니까?”

처녀는 살아난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는 생각되었지만 부끄럽고 창피하여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총각이 다시 말했다.

“낭자께서 어데 사시는지는 모르나 저의 집에 가서서 옷을 빌려 입고 가십시오. 저의 집은 제 어머니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도 처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총각은 혼자 집으로 가 치마와 저고리를 들고 왔

다.

“옷은 남루하지만 우선 입고 가십시오.”

처녀는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옷까지 주었으니 무척 고마워했다.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 처녀가 입을 열었다.

“저를 구해 주셨으니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고개를 숙이고 차분히 말하는 처녀가 총각은 더 없이 사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옛 친구라도 만난 듯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 처녀는 복장리 앞 강 건너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 열아홉 살 처녀였다. 날이 하도 더워 목욕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바위에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려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 그 옷을 건지려다가 물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다.

총각과 처녀는 오늘의 만남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기로 맹세까지 하였다. 혼사는 빠르게 진행되어 음력 7월 7일을 혼례일로 정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총각과 처녀는 그 날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혼례일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조금씩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자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혼례는

치러야 했기에 강을 건너기 위해 신랑 일행은 강가로 나왔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일행들은 청사초롱을 들고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비는 계속 쏟아졌고,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강 건너 새색시도 신랑이 당도하기만을 기다렸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며 강물이 불어나자 견디다 못해 집 앞마당으로 나가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새신랑이 행차를 하여 강가에 나와 선 것이 보였다.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쏟아져 저녁때가 되니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과 신부만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남게 되었다. 비는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쏟아졌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몇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떠날 줄 몰랐다. 이때 저쪽에서 ‘서방님!’ 하고 부르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총각은 ‘낭자!’ 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목 놓아 부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때 하늘에서 밝디밝은 빛이 두 사람을 비쳤다. 그 순간 신랑은 사모를 쓴 바위로 변하고, 신부는 족두리를 쓴 바위로 변했다. 지금도 해마다 칠석날이 되면 바위가 된 총각과 처녀의 넋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